



베이커리에 관한 것은 다 모였다!!

**www.bakeryzone.co.kr**

〈취재 / 김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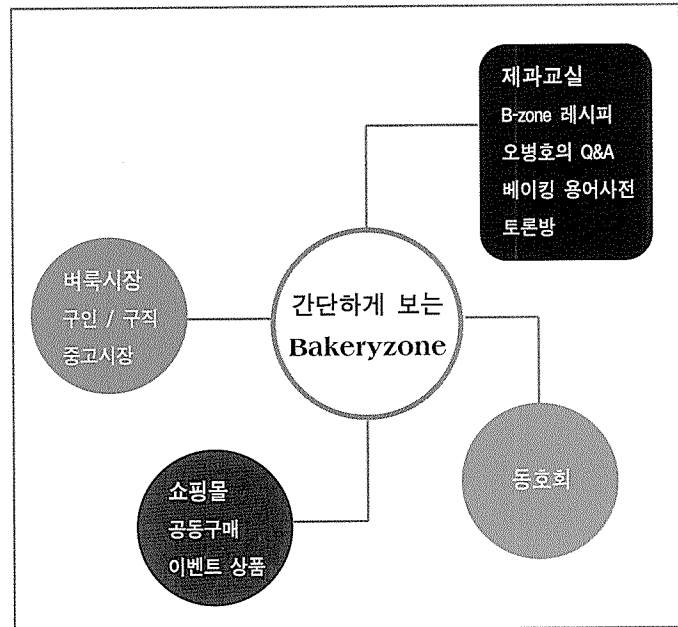
오른쪽을 쓰다보면 푸르스름한 물질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나요?

혹시 오랫동안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해 둔 건 아닌가요? 공기와 접촉하면서 색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 동(銅)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최초의 제과제빵 포털사이트 '베이커리존 www.bakeryzone.co.kr'의 토론방은 제과제빵업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질문들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명쾌한 대답들로 넘쳐 난다.

사이트를 돌아보면 '한군데라도 빈틈이 있을까' 하는 운영자의 고민 흔적이 역력하다. 제과교실·벼룩시장·쇼핑몰·동호회 등 4가지 큰 맥락으로 나뉘어진 이곳 콘텐츠의 백미는 단연 '실용성'. 자칫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릴 수 있는 이론 부문인 '제과교실'은 베이커리존의 이러한 미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영역이다.

'매우 광범위한 주제 속의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기대하면 된다. 도구 하나, 공정 하나까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섬세한 '레시피'와 어떤 질문에든 척척 대답해 주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한 '제과제빵 Q&A 코너'는 단연 자랑거리다. '베이킹 용어 사전'은 운영자들이 밤을 세워가며 관련 서적을 뒤적여 새롭게 정리한 것이라 더욱 의미 깊다.



'제과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한 당신, '벼룩시장'으로 떠나라. 구인/구직, 중고 시장, 점포 매매 등 생활 속의 정보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무료 운영되니 반갑다.

몰드, 데코레이션용 소도구가 필요하다면 '쇼핑몰'을 클릭해 보자.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구매액에 따라 마일리지도 쌓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 매력적이다.

'베이커리존'은 구인/구직, 신상품 등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매달 1~2회 회원 전체 메일을 통해 직접 전해준다. 앞으로 동영상 레시피 제공과 외국의 관련 서적 혹은 사이트와 협약도 추진하는 등 업계 관련 지식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 하니 회원 가입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이익일 듯.

